

실천이 나에게 준 질문

인권과 복지국가

전재일

전 재 일 서 재

차례

여는글	3
여는글·두개의제목	4
1부·마을에인권을심어라	7
1부를열며·아래로부터	8
1.이사를권하는기록	10
2.잘해서잘못된일들	14
3.이름을얻기까지	20
4.왜하필마을인가	27
5.그런데마을만으로는안됩니다	33
2부·사회사업실천에복지국가더하기	39
2부를열며·배운적이없는것	40
1.첫차	42
2.우리는이미하고있습니다	45
3.이름이불던날	50
4.규정되어있다는생각	55
5.제도가있어도	60
닫는글	63

닫는글·심는다는말,더한다는말	64
부록	69
부록·두장의표	70

실천이 나에게 준 질문

여는 글

여는 글 · 두 개의 제목

이 책의 제목은 몇 해 전에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정확히는 두 개였습니다.

'마을에 인권을 심어라'. 그리고 '사회사업실천에 복지국가 더하기'.

언젠가 이 제목들로 글을 쓰겠다고 적어두고는 쓰지 못했습니다. 바빴다고 하면 변명이 될 것이고,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면 그럴듯한 변명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래 적어둔 채로 두고 보니, 두 제목이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사회복지사로 이십 몇 년을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계속 따라다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뭔가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지켰는데 뒷맛이 남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잘 굴러갔고 사례는 잘 종결되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서 뭔가 마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남는지를 저는 오래 몰랐습니다. 그것을 부를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이름을 찾아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첫 번째 이름은 인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도 뒷맛이 남았던 이유는, 우리가 늘 판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우리가 정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물어도 판정석은 그대로였습니다.

인권은 그 자리를 없앱니다. 상대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복지국가였습니다.

인권에는 반드시 응답할 쪽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할 쪽이 없는 권리는 선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일차적으로 지는 쪽은 국가입니다. 그러니 인권을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제도에 닿게 됩니다.

두 이름은 앞뒤였습니다. 반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책은 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1 부는 마을에서 시작해 국가로 나갑니다. 이사를 권하는 기록 한 줄에서 출발해, 잘 해서 잘못된 일들을 지나, 제 언어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을 이야기하고, 왜 하필 마을이어야 하는지에 이르렀다가, 마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춥니다.

2 부는 국가에서 시작해 마을로 돌아옵니다. 새벽 첫차 한 칸에서 출발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일들을 다시 보고, 그 일에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그은 담장을 살펴본 뒤에,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다는 데서 끝납니다.

두 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 자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닙니다. 인권 기반 실천이나 복지국가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제가 현장에서 이미 보고 있던 것에 뒤늦게 붙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 개념을 배우시려면 이 책보다 나은 책이 많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뒤늦은 기록입니다. 무엇이 불편했는지,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냈는지, 이름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잘못은 대부분 제 잘못이고, 뒤늦은 깨달음도 대부분 저에게만 뒤늦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어딘가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간에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되지 않아 삼킨 분. 이게 맞나 싶은데 다들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고 있는 분. 그분께 이 책이 이름을 하나 건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걸려 찾은 것이라 해서 남에게도 그만큼 걸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제야 씁니다.

1 부 · 마을에 인권을 심어라

1 부를 열며 · 아래로부터

시작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짐 아이프의 『아래로부터의 인권』을 처음 펼칠 때, 저는 사회복지사로 이십 년 가까이 일한 뒤였습니다.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한 번에 읽어내지 못하고 몇 번을 다시 펼칩니다.

이 책이 저에게 준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오래 품고 있던 불편함에 붙일 이름이었습니다.

아이프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인권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과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정의해서 내려보내는 것만이 인권이라면, 인권은 그것을 다루는 자격을 가진 소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인권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인권은 아래에서 구성됩니다. 선언되기 전에 살아집니다.

둘째, 인권과 지역사회 실천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인권 없는 지역사회 실천은 방향을 잃고 좋은 마음의 나열이 됩니다. 지역사회 없는 인권은 문서 위에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나야 인권은 땅에 닿고, 지역사회 실천은 자기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두 명제를 잇는 방법이었습니다. 속의 민주주의입니다. 인권이 아래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 구성은 누군가의 선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앞에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불편함이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잘 수행된 실천이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왜 욕구를 정확히 물어도 무언가 남는지, 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자리에서조차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는지. 저는 이십 년 동안 그것들을 각각 다른 문제로 겪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였습니다.

1 부는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권하는 기록 한 줄에서 시작해서, 잘 해서 잘못된 일들을 지나, 제 언어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을 이야기하고, 왜 하필 마을이어야 하는지에 이르렀다가, 마을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1. 이사를 원하는 기록

그 동네는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학교에 가면 한 학년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가 만나야 할 아이는 열 명 남짓이었습니다. 가난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이 아파트 사이사이의 반지하와 옥탑방, 다세대 주택 한켠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던 것은 절대적 빈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들곤 했습니다.

"저 비싼 보증금이랑 월세를 감당하면서 왜 굳이 여기 사시는 걸까."

악의가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에 가까웠습니다. 소득에 견주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컸고, 같은 돈으로 다른 동네에 가면 훨씬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기록을 읽다가 한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사를 권유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월세가 비싼 곳에 계시는 것보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욕구를 물었고, 소득과 주거비를 확인했고, 문제를 정확히 짚었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였습니다. 사정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방향을 권하는 것. 저는 거기서 무능이나 무성의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 역시 속으로 같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그 계산이 문장으로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도착한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동네에 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기록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쓴 사람도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읽는 순간 저에게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은, 그 사람이 왜 하필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서는 내려질 수 없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그 동네에 사시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학군이 좋다고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비를 감당하면서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라는 권유는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득 대비 주거비라는 항목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녀 교육은 사정 서식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니 없는 것이 되었고, 없는 것이 되니 이사는 합리적인 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탓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문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셨어요?"

동료는 잘 이해했습니다. 반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고,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조로움이 오히려 걸립니다. 말해주면 바로 알아들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록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둘 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꽤 오래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사고하는 실천에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 몇 년이 지나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 이제는 제 질문이 먼저 걸립니다.

그 질문은 동료의 마음에 호소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대가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이사가 답이에요"라고 답하면 저는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감수성으로 겨루는 싸움에서는 더 깊이 공감하는 쪽이 이기는데, 공감의 깊이는 누구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대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끝납니다.

제가 물었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판정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의 선의를 인정하면서도 물려서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름을 붙이면 인권이 됩니다.

저는 그 이름을 그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갖게 되기까지 다시 열 해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글은 그 늦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 잘 해서 잘못된 일들

앞의 이야기가 열 몇 년 차의 일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제가 아직 신입이던 시절, 아동복지와 초등학교 학교사회사업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집단 프로그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의뢰된 아이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제 일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자료가 필요했고, 자료라고 하면 레크리에이션 책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펴면 놀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의 대부분이 경쟁이었습니다.

편을 나누고, 순서를 정하고, 이긴 팀에 상을 주고, 진 팀에 벌칙을 줍니다. 탈락한 사람은 밖으로 나와 앉아 남은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한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그 책들의 문법이었습니다. 다른 문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굴리다 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모아놓은 그 작은 집단 안에서도 서열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열 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앞에 서는 아이와 뒤에 서는 아이가 갈렸습니다.

서열이 생기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아이가 먼저 하고, 먼저 하는 아이가 더 잘하게 되고, 잘하는 아이에게 순서가 더 돌아갑니다. 뒤쳐진 아이는 다음번에 더 뒤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해보야 진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시간 안에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편을 가르고 순위를 매기는 활동을 줄이고, 개별화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사회복지실천은 의도적 개입입니다. 개별화는 그 의도적 개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집단은 결국 개인의 집합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역동이 살아나면 집단의 역동도 살아납니다. 그러니 편을 갈라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각자에게 맞는 개입을 하는 편이 낫다 — 이것이 제 논리였습니다.

지금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원칙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다만 그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더 낫다는 말이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효과를 근거로 삼으면 효과로 반박당합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참여율이 높다고 하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대화가 오갔고, 저는 대개 물러섰습니다.

제게 없던 것은 다른 층의 말이었습니다. 효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뒤쳐졌다고 이름 붙여 모아놓은 아이에게 다시 뒤쳐질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은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말. 그 말이 인권의 말이라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놀이들을 오래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낀 뒤에도 한동안 계속했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해야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래 사이에서 이미 밀려나 있다고 판단되어 저에게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시간 안에서 아이들은 다시 순위가 매겨지고, 다시 먼저 탈락하고, 다시 구경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에서 겪던 일을 복지관에 와서 한 번 더 겪은 셈입니다. 그것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마련한 자리에서요.

그 무렵 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학업에 짓눌리던 한 초등학생이 세상을 떠났고, 남긴 글에 물고기가 되고 싶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의 뜻만은 분명했습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이 되고 싶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숨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편으로 나누어 세우던 제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경쟁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는 경쟁을 요구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힘을 기르는 일도 분명 교육이고 성장입니다.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훨씬 좁은 자리입니다.

이미 뒤쳐졌다고 이름 붙여 모아놓은 아이들에게, 다시 뒤쳐질 기회를 설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가.

경쟁 일반이 아닙니다. 하필 그 아이들에게, 하필 우리가, 하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답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그 불편함을 부를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

비슷한 불편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장애체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을 이해시키겠다며 안대를 씌우고, 휠체어에 앉히고, 계단 앞에 세웁니다. 삼십 분쯤 지나면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힘들다고, 이제 알겠다고. 노인체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절을 묶고, 흐린 안경을 씌우고, 무거운 조끼를 입힙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마음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을 이해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장애는 불편하다는 것만 알게 하는 일인가. 오래 이 생각을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편협한 것일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 연구와 장애인권 운동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비판이 있었고, 실증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장애체험의 효과를 두 차례 실험으로 검증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체험을 하고 난 참가자들은 혼란과 당혹감, 무력감을 더 크게 느꼈고, 자신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참가자들 자신은 "장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해했다는 느낌만 남고, 실제로 남은 것은 공포와 연민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십 분 동안 흥내내는 경험 안에는 그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방법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대를 처음 쓴 사람이 겪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삶이 아니라, 갑자기 눈을 가린 비장애인의 당황입니다. 우리는 그 당황을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이해라고 부릅니다.

...

이 장에 늘어놓은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를 권한 사회복지사도, 경쟁 놀이를 준비한 저도, 안대를 나눠준 담당자도, 모두 선의로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준비를 했고, 자기가 배운 대로 잘 수행했습니다. 어느 하나 절차를 어기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셋 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판정했습니다.

이사를 권한 일은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있을 자리를 지웠습니다. 경쟁 놀이는 아이의 자리를 등수로 매겼습니다. 장애체험은 삼십 분짜리 흥내로 그 사람의 삶을 다 안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정하는 쪽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었고, 판정당하는 쪽에는 언제나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욕구를 묻는 실천은 이 구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한, 아무리 정성껏 물어도 판정석은
그대로 우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3. 이름을 얻기까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런 인상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 불편했을 뿐입니다.

신입 시절에 이미 불편했습니다. 경쟁을 소재로 한 놀이가 싫었고, 장애체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앞에서 썼듯이 저는 제 프로그램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것은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말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앞 장에서 쓴 대로 저에게는 실천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의도적 개입, 개별화, 집단의 역동. 그 말로 제가 무엇을 왜 바꾸었는지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없던 것은 다른 층의 말이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 저는 막혔습니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되죠. 다들 이렇게 해요. 여기에 대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제 방식이 더 낫다는 것뿐이었고, 더 낫다는 주장은 더 낫다는 주장으로 맞받으면 그만입니다. 효과를 두고 겨루는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결판나지 않습니다.

...

십 년쯤 되었을 때 매너리즘이 왔습니니다.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프로그램을 굴리는 것도, 결과보고서를 쓰는 것도 손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질수록 이상하게 헛헛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인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는데, 묻는 순간 막혔습니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 년을 사람 곁에서 일했는데 사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저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 서적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책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사회복지사 선서와 윤리강령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펴보지 않던 문서였습니다. 강령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문장 앞에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일의 기초가 인본주의라는데, 나는 십 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저를 꽤 오래 붙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나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질문만으로는 제가 겪은 불편함이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차리는 데 다시 십 년이 걸렸습니다.

...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제 태도에 관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사람을 이해하겠다,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문장의 주어가 전부 나입니다. 훌륭한 다짐이지만, 다짐인 이상 지키는 것도 저이고 지켰는지 판단하는 것도 저입니다.

인권은 다릅니다. 인권은 상대가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제가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상대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막고 있다면 저는 틀린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해는 아무리 깊어져도 제가 주체이고 상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주 깊은 사회복지사도 여전히 이사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앎을 근거로 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료에게 던졌던 질문이 벽에 부딪힌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깊이 이해하라고 요구했는데, 문제는 이해의 깊이가 아니라 누가 판정석에 앉아 있는가였습니다.

전환은 이해가 깊어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일어납니다.

...

그 이름을 저에게 준 것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짐 아이프의 『아래로부터의 인권』입니다. 2019 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한 번 읽고 덮었다가 다시 폈고, 그렇게 세 번쯤 읽었습니다. 어려워서 반복해 읽었는데, 이상하게도 읽을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읽었고, 나중에는 제 지난 열 몇 년을 대조하며 읽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인권이 법정과 국제기구의 언어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선언되어 내려오는 것만이 인권이라면,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인권은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즉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마을은 인권의 변두리가 아니라 인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인권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됩니다.

제가 이십 년 동안 품고 있던 기분에 마침내 이름이 붙었습니다.

...

돌아보면 제가 지나온 길은 세 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눠주었습니다. 있는 것을 주었고, 받는 분이 그것을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제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공평하게 나눠주었는가였습니다.

다음에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지 묻고, 그에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낭비가 줄었고, 만족도가 올라갔고, 저도 일이 훨씬 정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이 단계를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묻는 실천에는 끝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지를 만드는 것도 저였고, 어떤 대답을 자원과 연결할지 정하는 것도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물어도 이사를 권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인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앉아 있던 판정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그 뒤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본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가 우리 일의 핵심 가치로 명시되었고, 개인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원칙이 들어갔으며, 실천 과정에서 당사자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는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십 년 차에 읽으며 부끄러워하던 그 문서가, 제가 찾던 언어를 뒤늦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이십 년의 지체는 저 혼자만의 둔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직업 전체가 인본주의에서 인권으로 언어를 옮기는 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각자의 현장에서 기분으로만 견디던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

그런데 이름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쫓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목소리를 냈고, 주거권 운동에도 함께했습니다. 인권의 언어를 갖게 된 뒤였으니,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쫓다뺏는 기초연금'은 이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에서

그만큼 깎입니다. 보충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와도 손에 남는 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준 다음에 뺏는다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매월 청계천에서 촛불집회를 했습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연락을 드리고, 목소리를 모으려고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깎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었고, 집회에 나와 발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이십만 원 받으신 만큼 매달 수급비에서 빠지는 거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

여쭙 때마다 대개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알아차리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이쪽 통장으로 들어오고, 깎이는 것은 저쪽 급여에서 일어납니다.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만 보이는 손해입니다. 매달 받는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근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권리는 알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침해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 같은 활동가였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욕심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정석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권리를 대신 말해주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고 헌신적이어도, 그가 말하는 동안 당사자는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치거나 떠나면 그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기반 실천의 핵심은 사회복지사가 인권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인권도 결국 우리가 나눠주는 또 하나의 재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자기 권리를 말하게 될까요. 국회 앞도 아니고 기자회견장도 아닐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인사를 나누고 다투기도 하는 자리, 곧 마을일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의 제목을 명령형으로 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에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4. 왜 하필 마을인가

앞 장의 끝에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교육일 것입니다. 인권 교육을 하면 되지 않느냐. 강당에 모아놓고 제도를 설명하고, 권리 목록을 알려드리고, 유인물을 나눠드리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방식을 오래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강의를 듣고 나오는 길에 남는 것은 대개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2 장에서 이야기한 장애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십 분 동안 안대를 쓰고 나서 "이제 알겠다"고 말하는 것과, 한 시간 강의를 듣고 "좋은 말씀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착각입니다. 정보가 전달되었을 뿐, 그 정보가 자기 삶의 어느 지점과 만나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것은 보충성 원리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강의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함께 통장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알게 됩니다.

얕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일상이 있는 곳이 마을입니다.

...

마침 우리 복지의 무게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복지의 가장 큰 화두는 돌봄입니다. 그리고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옮겨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돌봄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복지사에게 유리하기만 한 소식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전문가가 설계하고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감당되지 않고, 우리가 퇴근한 뒤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결국 이웃이 함께해야 하고, 상인이 함께해야 하고, 통장님과 반장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복지는 미시적입니다. 대상자 수로 보면 작고, 예산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그런데 훨씬 섬세해야 하고, 훨씬 가까이 가야 하고, 무엇보다 훨씬 많은 참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참여가 어떤 참여냐는 것입니다.

...

참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혜로서의 참여입니다. 딱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드리고, 명절에 물품을 전하고,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참여에는 방향이 하나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자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그 집은 계속 받는 집이고, 그 사람은 계속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쪽이 지치거나 사정이 생기면, 그 관계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1장에서 이야기한 판정석이 마을 단위로 옮겨온 것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응답으로서의 참여입니다.

이 참여는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딱한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 앞에서 사람은 돕는 것이 아니라 응답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을에서 주민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권리에 응답할 책임을 나눠 가진 사람입니다. 두 자리를 한 사람이 겸합니다. 오늘 응답한 사람이 내일은 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들을 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 달라집니다.

이사를 권한 일은 시혜의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판단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드린 것입니다. 만약 응답의 논리였다면 질문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분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게 물었다면 그것은 한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여러 사람의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그 순간 이웃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손해 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모두가 겪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옆집 사람은 딱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잘못되었으니 함께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혜에는 대상이 필요하지만 응답에는 동료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인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사회복지사만 가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대신 말하게 됩니다. 3 장에서 이야기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없는 시간에도 누군가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물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에 인권을 심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

아이프의 책에서 제가 가장 오래 붙들었던 대목이 여기와 닿아 있습니다. 속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권리가 아래에서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겪은 것을 꺼내놓고, 그것이 나만의 사정인지 여럿의 일인지 따져보고, 여럿의 일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로 만들어가는

과정. 결론이 빨리 나지 않고, 때로는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인권을 심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은 다음번에 자기 일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을에 필요한 것은 인권 강좌보다 이야기할 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이 통장을 들고 모여 서로의 명세를 건주어볼 수 있는 자리, 세입자들이 각자의 계약서를 꺼내놓고 이게 나만 그런 건지 물어볼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없으면 각자의 손해는 끝까지 각자의 사정으로 남습니다.

...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판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하지 않는 일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직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장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 한 사람의 불편이 그 사람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럿이 확인하게 하는 일. 그렇게 확인된 것을 말로 만들 수 있도록 곁에서 거드는 일.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일.

마지막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개 말을 더 잘하고, 제도를 더 잘 알고, 시간도 더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대신 하는 것이 언제나 빠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일에는 성과지표가 없습니다. 몇 명에게 무엇을 제공했다고 쓸 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담기 어렵고, 평가에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리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영영 하지 않게 됩니다.

5. 그런데 마을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오해를 살 것 같아 한 장을 더 붙입니다.

1 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권하는 기록을 읽고 동료에게 질문을 던진 뒤, 저는 그 일을 그대로 두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결국 걸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였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계약 때마다 오르는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거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전월세 상한을 두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의무를 강화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신이 왔습니다. 좋은 의견이지만 어렵다는 답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같은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안서를 쓰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사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소득에 비해 높았고, 해마다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을 내지 못하면 미납이 쌓이고, 미납분은 보증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면 보증금이 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손에 쥘 것이 없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매달 조금씩 잃고 있다는 것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회신을 받았을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안이 거절당한 것보다, 제가 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저에게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복지국가라는 말을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답을 받지 못한 편지가 제 방향을 정해준 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열 몇 년 뒤에야 사회적 논의가 겨우 시작된 문제를, 지역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편지 한 통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그때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을에서 알아차린 것을 마을에서는 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임대료는 이웃이 정하지 않습니다. 통장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계약갱신 조건은 통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계속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결을 지키는 것까지이고, 그 이상은 다른 곳에서 결정됩니다.

...

인권에는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권리에 응답할 책임을 진 쪽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할 쪽이 없는 권리는 선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쪽은 국가입니다.

마을 주민은 이차입니다.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응답할 몫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몫은 국가가 먼저 자기 몫을 다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마을의 응답이 선의로 남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마을의 응답은 떠말음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요즘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돌봄을 지역사회로 옮기자는 흐름은 옳은 방향입니다. 사람을 시설로 보내지 않고 살던 자리에서 살게 하자는 뜻이니깐요.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쉽게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져야 할 몫을 마을의 선의로 대신하자는 뜻으로요.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책임만 아래로 내려보내는 일에, 지역사회라는 좋은 말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인권을 심어라'는 말이 그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을에 인권을 심는 일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일이라고 앞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권 인식이 제대로 심어지면 마을은 자족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향해 말하는 마을이 됩니다.

마을에 인권을 심는 일과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은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앞뒤입니다.

...

그래서 1 부는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2 부입니다. 마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제도와 예산과 법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월권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서 때문입니다. 마을에 인권이 심어지지 않으면,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결국 우리뿐이게 됩니다. 3 장에서 이야기한 그 자리, 당사자 대신 말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최근에야 손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하고, 그 추가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깎이던 구조를 일부나마 풀겠다는 것입니다.

열 몇 년이 걸렸습니다.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던 그 시간부터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 문제를 겪던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끝내 자기가 무엇을 못 받았는지 모르신 채로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두 가지를 함께 느낍니다. 하나는 늦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계속 늦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함에 이름을 붙이기까지 이십 년이 걸렸고, 우리 직업이 언어를 바꾸는 데 그만큼이 걸렸고, 제도가 한 줄 고쳐지는 데 또 그만큼이 걸렸습니다.

늦는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계속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나중에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을에 인권을 심는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멈춥니다. 심어진
것이 어디로 자라는지를 보려면, 이제 위를 올려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부 · 사회사업실천에 복지국가 더하기

2 부를 열며 · 배운 적이 없는 것

1 부를 쓰고 나서 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어진 인권이 위를 향해 말하게 된다면, 그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자리에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국가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오래 붙들었던 것은 미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실천론과 기법, 사정과 개입, 관계 형성과 면담. 그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그 훈련으로 이십 몇 년을 버텼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다 보면, 우리 일이 정책과 제도에 얹혀 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는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입니다. 이 책은 복지국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사회는 시장을 앞세우고, 어느 사회는 직업과 신분에 따라 제도를 따로 두고, 어느 사회는 모두에게 같은 자격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가르는 두 축이 탈상품화와 계층화입니다. 이 두 말이 제가 현장에서 매일 보던 것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정완 선생의 『복지국가의 철학』입니다. 이 책은 왜 복지국가여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여러 철학 조류를 검토한 끝에 롤스의 정의론이 복지국가를 가장 견고하게 지지해준다고 봅니다.

앞의 책이 어떤 복지국가인가에 답한다면, 이 책은 왜 복지국가인가에 답합니다.

두 권 다 혼자 찾아 읽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의 뿌리와 개념과 지향점을 좀 더 분명히 해두자는 뜻이었습니다. 알아야 더 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2 부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얹어보자는 것.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1 부가 마을에서 시작해 국가로 나갔다면, 2 부는 국가에서 시작해 마을로 돌아옵니다.

1. 첫차

저는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종 첫차를 탑니다.

첫차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칸에 누가 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처음 몇 해는 그저 조용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칸에 계신 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저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저분은 누군가의 어머니일 것이다. 어느 집에서는 저분이 새벽에 나가신 줄도 모르고 아직 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궁금해졌습니다. 저분들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걸까.

...

궁금증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분이 어느 날 아프시면 어떻게 될까. 허리를 다치거나 큰 병을 얻어서 더는 이 시간에 나올 수 없게 되면,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자리가 없어지면, 그때 저분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어떨까. 내가 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몸이 상하거나 자리가 없어지거나 해서 지금 하는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면, 나에게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이 상상을 한번 해보고 나면 첫차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 칸에 계신 분들과 제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아프지 않았고 아직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

그리고 나서 일터에 가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일을 하고 계셨고,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그것을 각자의 사정이라고 부르며 사례로 만나 왔습시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 부양할 가족이 없으신 분,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그런데 첫차에서 하던 그 상상을 여기에 겹쳐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불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었습시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것은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 두었느냐입니다.

...

저는 이 질문을 오래 품고만 있었습시다.

현장에서 이 질문을 꺼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은 눈앞의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되고, 대개 거기서 끝납시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이미 이름이 있었습시다. 사람들이 오래 논의해 온 개념이 있었고, 그것을 다루는 책이 있었고, 그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시다.

저는 그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니, 제가 이십 년 넘게 해온 일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2.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상당수는 반지하와 고시원과 옥탑방에 사십니다. 지옥고라는 말이 생길 만큼 혼한 일이어서, 우리는 그 집들을 특별한 사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방문 일정에 그렇게 적혀 있고, 사정 서식의 주거 형태 칸에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대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잠잘 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요구도 없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마땅한지를 따지는 대목이 아예 없습니다. 주거가 권리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없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형편이 그러하니 그 집에 사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서 조금 낫게 만들어드리는 것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옮기실 수 있도록 신청을 돕습니다. 자원을 연계해 집을 정리합니다. 방충망을 겁니다. 도배를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가

없으면 어떻게든 마련해 드립니다. 여름이면 곰팡이를 걱정하고 겨울이면 결로를 걱정합니다.

몇 해 전 큰비가 내려 반지하들이 잠겼을 때도 그랬습니다.

임시거처로 가실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공적 지원과 민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붙였습니다. 일손이 없는 집에는 직접 가서 정리를 도왔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는 남은 것을 살폈습니다. 사후 트라우마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정리해 밖으로 알렸습니다. 이것이 기후 문제이고, 복지관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 집들에 계신 분은 대부분 어르신이었습니다.

마을 전반에서 수해가 나다 보니 군부대 지원이나 공공의 손길이 당장 닿지 않았습니다. 물에 젖은 가전을 밖으로 내고 장판을 걷어내는 일은 어르신들 힘으로는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거처로 가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신 집을 떠나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그분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지내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누울 자리를 만들고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름이라 선풍기도 필요했습니다. 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젖은 집을 말리려면 바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사례관리라고 부릅니다. 자원 연계라고 부르고,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부르고, 재난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신청을 돕는 일은 제도를 사람에게 닿게 하는 일입니다. 방충망과 도배는 사람이 살 만한 최소한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임시거처를 연결하고 공적 지원을 붙이는 일은 국가가 마련해 둔 몫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트라우마 조사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록으로 만드는 일이고, 그것을 밖으로 알리는 일은 그 기록을 사회에 내놓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를 사람이 살 만한 수준으로 보장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매일 손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지국가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

그러면 부르는 이름이 무슨 차이를 만드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례관리라고 부르면 그 일은 그 집에서 끝납니다. 잘 마무리되었고, 종결 사유를 적고, 다음 사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회권이라고 부르면 같은 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동네의 열 집이 왜 해마다 같은 일을 겪는지가 질문이 됩니다. 개별 사례가 쌓여 제도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충망은 이듬해 여름에 다시 답니다. 도배는 몇 해 지나 다시 합니다. 그렇게 몇 해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그 집이 반지하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방충망

덕분에 그해 여름이 건널 만해졌을 것이고, 그 도배 덕분에 아이가 친구를 부를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값진 일입니다.

다만 이름이 없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수해 뒤에 반지하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더디게 갑니다. 그사이에도 사람들은 그 방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그분들은 결국 그 방으로 돌아가십니다. 복지관이 닿을 수 있는 끝이 거기입니다.

그 방을 없애는 일은 복지관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문 앞까지 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조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증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례를 정리해 밖으로 알린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보는 기록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근거를 만들고 있었고,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방향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나면 한 걸음이 더 었습니다.

...

이 글의 제목이 '더하기'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빼기가 아닙니다.

없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미 하던 실천에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이걸 새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보는 일이라 힘이 더 들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걸음입니다. 이름이 붙으면 그다음이 보입니다. 조사한 것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있으면 요구가 됩니다. 한 집을 도운 기록이 열 집의 이야기가 되고, 열 집의 이야기가 제도를 향한 말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더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개념 없이 더 하자고 하면 그저 일이 늘어날 뿐이고, 현장은 이미 충분히 바쁩니다. 그러나 개념이 있으면 하던 일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이름이 붙던 날

앞에서 에스핑-안데르센의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얻은 두 개의 말을 여기서 풀어보려 합니다.

...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오래 남은 말은 탈상품화였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아파서 일을 쉬어도, 나이가 들어 일을 놓아도, 회사가 문을 닫아 일자리가 없어져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멈추는 순간 곧바로 생계가 흔들린다면 낮은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이해했을 때 저는 새벽 첫차를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나오시는 것은 부지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멈추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칸에서 본 것은 개인들의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탈상품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의 부지런함처럼 보이던 것이 실은 제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뒤집힘이 저에게는 컸습니다.

...

또 하나는 계층화입니다.

복지제도는 사람들을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고 누가

밖에 남는지,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두터운 보장을 받는지가 제도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있던 차이를 굳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미 매일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일을 놓았는데 어떤 분은 연금으로 사시고 어떤 분은 폐지를 주우십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대보험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자의 형편이라고 부르며 지나쳐 왔는데, 그 형편의 상당 부분은 제도가 그어놓은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사람에게만 그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나면 여러 전문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 안에 사회복지사의 자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사람들을 만나온 사람들인데도 공식적인 대응 구조에서는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일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제도가 우리를 어디에 놓아두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매일 그 선을 보며 일해온 우리 자신에게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

에스핑-안데르센은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 복지국가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시장을 앞세우고 국가는 정말 어려운 사람만 골라 돕는 쪽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해야 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일에 낙인이 따라붙습니다.

직업과 신분에 따라 제도를 따로 두는 쪽이 있습니다. 보장은 두텁지만 원래 있던 자리 차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같은 자격으로 보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낙인도 덜하고, 그래서 제도가 사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말이 갈립니다. 저도 판단할 처지가 못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한 감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도움을 받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고, 재산을 증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의 절차를 곁에서 돕는 것이 제 일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

이제 앞 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수해가 났을 때 그 방에 계시던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이었습니다. 왜 어르신이었을까요. 나이가 들어 일을 놓았을 때 살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상품화가 낮으면 노년의 주거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지하와 고시원과 옥탑방은 그 내려감의 끝자리입니다.

공공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도 구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피해가 워낙 넓어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자원을 모으고, 그것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넓게 그리고 고르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공공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방식입니다.

복지관의 자리는 그 시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를 메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특별히 유능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느 방에 사는지, 혼자 계신지, 무릎이 어떠신지를 조사하지 않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딱한 사정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디까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기로 했는지가 드러난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몫을 맡고 있었는지도요.

공공은 넓고 고르게 갑니다. 우리는 좁고 빠르게 갑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복지국가를 안다는 것은 국가가 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자리를 아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재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보여준 자리는 세월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 일의 무게를 우리가 겪은 일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해 앞에서 했던 일도 그 뒤에 놓인 걸음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이것이 이름을 안다는 것의 뜻입니다.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달라집니다. 선풍기를 가져다드린 일은 여전히 선풍기를 가져다드린 일이지만, 동시에 이 사회의 보장이 어디서 끊겼는지를 우리 손으로 메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하필 그분들이었는가. 왜 매년 같은 계절에 같은 집이 잠기는가. 우리가 메우고 있는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몫이었는가.

4. 규정되어 있다는 생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대개 마지막 칸에 놓입니다.

이 배치는 오래 일하다 보면 몸에 붙습니다. 나는 사회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연금이나 급여 설계는 다른 영역의 일이다, 법이나 예산은 내가 말할 자리가 아니다.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맡은 일이 이미 벅차고,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이 굴러가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분류는 급여의 종류를 나눈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담장으로 읽었습니다.

...

하단이라는 말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사회서비스는 대개 아래쪽에 놓입니다. 위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정되고, 지침이 내려오고, 마지막에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끝자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래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가 실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잘 설계해도 여기서 닿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것이고, 알아도 신청서를 쓸 수 없으면 없는 것이고, 신청해도 서류 한 장이 모자라 반려되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몇 발짝을 잇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수해 때도 그랬습니다. 공공은 넓고 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 절차가 도착하기 전의 며칠을 메웠습니다. 그것은 체계의 말단이 아니라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판가름 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하단이라는 말은 위치를 가리킬 뿐, 중요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매년 걸리는 분을 보아온 사람은 그 기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통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지하에 매년 들어가 본 사람은 주거 기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수급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그 설계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조문을 압니다. 예산을 짜는 사람은 총액을 압니다. 그리고 그 조문과 총액이 한 사람의 하루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는 그 자리에 있어본 사람이 압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 다 있어야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몫의 얇이 따로 있고, 그것이 빠지면 제도는 종이 위에서만 맞습니다.

...

그렇다면 왜 그래도 되는가. 이 물음에 저는 신정완 선생의 『복지국가의 철학』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분배적 정의입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롤스는 사회 제도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짜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비적정 주거에 사시는 분, 하루 한 끼로 지내시는 분, 그리고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기회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마지막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기회라고 불러왔던 것을, 롤스는 정의의 문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을 뿐 저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복지국가를 효율로 옹호하면 효율로 무너집니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출산율을 올린다 — 이런 근거는 형편이 좋을 때는 통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그대로 뒤집힙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정의를 근거로 삼으면 다릅니다. 그것은 형편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야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사명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런데 존엄은 마음가짐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만한 집,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 일을 놓아도 곧바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 그런 것이 갖춰져야 존엄이 실제로 성립합니다.

그 조건을 갖춘 사회를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사가 곁다리로 얹는 정치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사명이 결국 도착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 그 사명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그 자리에서 깊이 파는 일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의 방법을 버리고, 관계를 다지고, 한 사람과 오래 함께 가는 일. 저는 그 일의 값을 압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개 그쪽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 대신 다른 것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를 엮자는 뜻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더하기'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담장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는 인원이 적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골라 집중하느냐에 따라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달라지고, 일하는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다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일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시야가 좁으면 고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놓인 것만 하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야 지금 우리 앞의 이 일이 어디에 놓인 일인지 보이고, 그래야 무엇을 먼저 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개념은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5. 제도가 있어도

여기까지 쓰고 나니 한 가지를 더 말해야겠습니다.

이 글은 계속 위쪽을 향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제도와 이어져 있다는 것, 분류가 담장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몫의 얇이 따로 있다는 것. 그러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쓰자.

그런데 제도가 갖춰지면 그것으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

기초연금이 그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에서 그만큼 깎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손에 남는 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준 다음에 뺏는다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제가 그 문제로 활동하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쭙면 그런 게 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알아차리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이쪽 통장에서 보이고, 깎이는 것은 저쪽 급여에서 일어납니다.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야만 보이는 손해입니다.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

이 경험이 저에게 남긴 것은 이렇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일과 그 제도가 사람에게 닿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앞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지만, 뒤의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의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앞 장에서 사회서비스가 전달체계의 아래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썼는데, 그 말의 뜻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그 마지막 몇 발짝에서 끊기면 종이 위에만 남습니다. 그 몇 발짝을 우리가 잇습니다.

그러니 복지국가를 생각한다는 것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으로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 알고, 대신 신청해 드리고, 대신 말해드리는 동안 그분은 여전히 자기 일을 모르는 채로 계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자리를 옮기거나 사업이 끝나면 그 앞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자기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것을 아는 분이 늘어나면 요구가 생기고, 요구가 쌓이면 제도가 움직입니다.

기초연금 문제도 최근에야 손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열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사이 그 문제를 겪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끝내 모르신 채로요.

...

이 글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얹어보자는 것.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는 눈앞의 일이 어디에 놓인 일인지가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지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은 우리가 처음 배운 것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우리는 그 말을 배우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엄이 마음가짐이 아니라 조건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조건을 갖춘 사회를 바라는 것은 우리 일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 일의 끝자락입니다.

...

내일도 저는 첫차를 탈 것입니다.

같은 칸에 비슷한 분들이 타고 계실 것이고, 저는 여전히 그분들에게 무엇도 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제가 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실천이 나에게 준 질문

답는 글

닫는 글 · 심는다는 말, 더한다는 말

두 부를 다 쓰고 나니 제목에 쓴 두 개의 동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심는다는 더한다. 둘 다 제가 고른 말인데, 왜 하필 그 말이었는지는 다 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

먼저 심는다는 말입니다.

인권을 가르치자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말에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내내 경계한 바로 그 구도입니다. 아는 쪽에 서서 모르는 쪽에게 건네는 자리, 판정석의 또 다른 모양입니다.

심는다는 말에는 그 구도가 없습니다. 심은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일은 심긴 자리에서 알아서 일어나고, 심은 사람은 물을 주고 기다릴 뿐입니다. 무엇이 자랄지도 심은 사람이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는 일에는 두 가지 성질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열매를 심은 사람이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십 년 전에 느낀 불편함이 이제야 문장이 되었고, 촛불을 들던 일이 열 몇 년 뒤에야 제도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올해의 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평가에서 점수를 받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말은 그 시간 동안 누군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끝내 모른 채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실 앞에서는 이 일을 나중에 미룰 자신이 없습니다.

...

그리고 더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뺀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현장의 무게를 압니다. 사회사업의 방법을 버리고, 관계를 다지고, 한 사람과 오래 가는 일.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개 그쪽입니다. 그 일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일 대신이 아니라 그 일 위에 얹는 것입니다.

엮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미 하던 실천에 인권이라는 이름,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새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보는 일이라 힘이 더 들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걸음입니다. 이름이 붙으면 그다음이 보입니다. 한 집을 도운 기록이 열 집의 이야기가 되고, 열 집의 이야기가 제도를 향한 말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더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개념 없이 더 하자고 하면 그저 일이 늘어날 뿐이고, 현장은 이미 충분히 바쁩니다. 아는 것이 먼저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고 시간이 모자라니,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

두 동사를 나란히 놓고 보니 결국 같은 말이었습시다.

심는 일도 더하는 일도 내가 다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엮는 것은 이미 있는 것 위에 놓입니다. 둘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계속 벗어나려 한 자리가 그것이었습니다. 판정하는 자리, 대신 말하는 자리, 내가 아는 것을 건네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여전히 잘 하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대신 하는 것이 빠르고, 제가 더 잘 안다고 여기며, 판정석이 편합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지 못할 때 그것이 왜 잘못인지도 압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가 아직 멀습니다.

...

이 책을 읽으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신 그 일에도 아마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사례관리라고 불렀지만 실은 사회권이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인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보는 데 이십 년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당장, 그리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실천이 나에게 준 질문

부록

부록 · 두 장의 표

본문에서는 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표로 정리해 두면 읽는 사람이 그것만 보고 넘어가기 쉽고, 이 책이 하려던 이야기는 정리된 도식이 아니라 그 도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료들과 함께 읽거나 이야기 나눌 자리에서는 정리된 것이 쓸모 있을 수 있어, 두 장만 여기에 둡니다. 본문의 요약이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재료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 1. 사회복지실천의 세 겹

	공급 중심	욕구 중심	인권 기반
무엇을 하는가	있는 것을 나눈다	필요한 것을 묻고 맞춘다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밝힌다
누가 정하는가	주는 쪽	문는 쪽	정하는 자리 자체를 없앤다
근거의 종류	공평하게 나눴는가	더 나은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반박당하는 방식	왜 저 사람만 주는가	우리 방식도 효과가 있다	반박이 어렵다

	공급 중심	욕구 중심	인권 기반
남는 것	낭비와 무력감	판정석이 그대로 남는다	응답할 쪽을 찾게 된다

표 2.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복지체제

	시장을 앞세우는 쪽	직업과 신분에 따라 나누는 쪽	모두에게 같은 자격으로 주는 쪽
학술적 명칭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낮다	중간	높다
급여 방식	어려움을 증명해야 받는다	직역별로 따로 보장한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보장한다
계층화	받는 사람에게 낙인이 붙는다	원래의 지위 차이가 이어진다	제도가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표적인 곳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실천이 나에게 준 질문

인권과 복지국가

지은이	전재일
펴낸곳	전재일 서재
출판신고	2026년 8월 24일 제2026-000058호
발행	2026년 8월 26일
값	비매품
ISBN	979-11-221028-3-3
전자우편	jijun74@gmail.com

© 전재일, 2026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배포를 금합니다.

2026년 9월 A5 판형으로 다시 짤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읽으실 분께는 <https://jae12.web.app> 에서 직접 내려받으시기를 권합니다.

